



### 함평군, 공무원·군민 혈액 수급난 극복 '앞장'

함평군 공무원과 군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앞장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소 주차장에서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공무원과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헌혈자 급감으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50여 명의 공직자와 군민들이 헌혈에 참여하며 출혈수범의 자세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참여해 주신 주민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운영

신안군은 하계방학을 맞아 관내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저녁노을미술관에서 7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드로잉 파크'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신안군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은 송광항 인근 무지개길에 오천만평의 바다정원과 삼만평이 넘는 분재공원 내 전망 좋은 위치에 있으며 연중 상설·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이 위치한 분재공원에는 1,000여점이 넘는 진귀한 명품 분재와 예기동백, 비파, 목수국, 소사나무, 배롱나무 등 남도의 아름다운 나무와 각종 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생태연못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야생화가 자라고 숲 곳곳에는 소나조각이 나무들과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천사섬 분재공원은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공원이다.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공원은 자연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신안군의 탐과 노력의 결실로 어디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자연 공원이다.

'드로잉 파크'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분재공원을 배경으로 저녁노을미술관에서 기획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예술가와 함께 식물 또는 자연을 느끼고 즐기며 초보자부터 경력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 목포시, 여름밤 근대로의 시간 여행 펼쳐진다

'시간을 걷는 도시' 목포의 여름밤에 근대로의 시간 여행이 펼쳐진다.

목포시는 5년 연속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 목포 문화재 소(小)야행을 오는 7월 29~30일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위주로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또 가을에만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소(小)야행을 개최해 시민과

7월 29~30일까지 이틀간 2022 목포 문화재 소(小)야행 공연·전시·체험 등 13개 프로그램 진행...오프라인 중심

관광객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관고 싶은 여름 밤거리가 될 소야행은 근대역사공간 곳곳에서 플라마켓(1897 포개비장터), 팝업카드, 도자기(머그컵) 만들기 등 공방

체험과 추억의 전통놀이가 운영돼 어린이에게는 재미를, 어른에게는 향수를 제공한다.

또한 경동성당과 야외무대에서는 근대 재즈 콘서트, 가곡 공연 '여름밤의 세레나데', 현악 4중주, 청년 음악가 공연 등을 비롯해 목포 배경의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재 달빛

극장'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근대역사2관 벽면을 활용해 문화재 데생 위에 색을 입히는 '컬러링 아트 체험'과 근대역사거리 상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우리동네 아트 갤러리'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여름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잊고 있었던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암군 미암면장실, 주민소통실로 탈바꿈...주민속으로 한발 더

영암군 미암면장, 1층에서 근무...기존 면장실 주민소통실로 활용

영암군 미암면(면장 김명희)은 면사무소 2층에 있는 면장실을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주민소통실로 바꾸고 면사무소 1층으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토의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자로 부임한 미암면장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목표로 민선8

기 소통 행정에 돌입하고 있는 우승희 영암군수의 행정 기조에 발맞춰 면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 온 2층 면장실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소통실로 바꾸고 주민들과 현안 논의 등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신 미암면장의 업무공간은 1층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군민중심·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앞으로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과 보다 열린 소통 공간에서 직접 대화하고 마을 현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희 미암면장은 "면장실을 옮기게 된 것은 단순히 면장의 사무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뜻을 귀 기울이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면민 여러분이 군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소



통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영광군, 국제 그린카 전시회서 영광 e-모빌리티 산업 홍보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영광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국제 그린카 전시회에 참가해 영광 e-모빌리티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모빌리티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 영광군에서는 미래 자동차산업

을 이끄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영광 스포티움에서 개최되는 '2022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홍보하고, 대마 전기차산업단지

에 대한 지원제도설명과 투자 상담을 통해 참가한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3년 만에 개최되는 2022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다양한 미래기술이 융합되고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이동수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업박람회로써, 전시 및 시승체험, 블랙박스 에어쇼, 대학생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 e-모빌리티 홍보관을 방문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의 경쟁력을 키워온 3대 주력산업이 뿌리산업, 친환경 자동차, 사물인터넷 가전로봇인데, 그 중 하나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을 테마로 개최되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광주광역시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무안 청계면 축산농가, 2년 연속 쌍둥이 송아지 출산

지난 21일 새벽 무안군 청계면 월선3리 이장인 김상식 씨 농가에서 암소아지 두 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김상식 농가에서는 지난해에도 다른 소가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현재 이미 소와 송아지 모두 건강한 상태로 감씨 부부는 일찍 태어난 송아지들이 초유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식 이장은 "어미 소가 쌍둥이를 출산하리라 상상을 못했는데 새벽녘에 태어난 송아지들을 보고 삼복더위에 길조를 보는 것처럼 가슴이 벅찼다"고 감동을 전했다.

이해향 청계면장은 "한 농가에서 2년 연속으로 송아지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옛날부터 길조로 여겨졌다"며 "앞으로 무안의 축산 농가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대표적인 축산인사로 이름난 김상식 씨는 현재 목포무안신안축협에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젊은 축산인들에게 축산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